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2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25 )	봉헌 (210 )	성체 (179 )	파견 ( 34 )
---------	-----------	-----------	-----------	-----------

###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4 구역:**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스티노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7	유 요한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1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21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28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9/4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이 조연.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7/31/16	\$210	0	\$150

평협 임원회의: 8/14 (일) 오후 7시

8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8 월 14 일(주일) 저녁 7 시에 사제 관에서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야곱의 마음으로

이 세라 진이아가다/KBS 기상 캐스터

지금은 새벽 두시를 훌쩍 넘긴 한 밤중입니다.밖에는 조용하지만 한결같은 기다림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새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향초를 켜고 따뜻한 차를 내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실릴 원고 마감일을 벌써 며칠이나 넘겼으니, 어떻게든 이 새벽에 마무리를 지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이런 비 라니, 저는 원래 쓰기로 했던 내용을 제쳐두고 자꾸만 여러분께 저 에 대해 선불은 고백이 하고 싶어 집니다.

어떻게 받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때로 제가 '사냥을 싫어하는 동물'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동물인데 사냥을 싫어하는 동물 말입니다. 참 난감한 존재아닙니까? 동물이라면 응당 다른 존재를 포획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니 말입니다. 이건 사냥을 못 하는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못 하는 건, 언젠가는 잘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해도 잘 하고 싶으니 노력을 할테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잘 하게 되는 날을 맞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거 라면 얘기가 달라 집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보면, 결국은 마치 유령처럼, 영혼처럼 오랫동안 제 안을 떠돌고있는 질문과 만남입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악착같아지지않고, 누군가의 뒷덜미를 낚아채는 일에 열을 올리지 않고도 저는 소위 말하는 '성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삶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청춘의 시간은 그것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름다웠음을 알게 되는 걸가요? 삶의 수수께끼들은 언제쯤 풀리는걸가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사악의 아들, 야곱을 떠 울리곤 합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그에게는 삶에대한 강한 애착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쌍둥이 형 예사우의 발 뒤꿈치를 꼭 붙들고 나온 이가 아닙니까? 야곱을 유명하게 한것은 '하느님과 씨름을 해 이긴 최초의 인간'이라는 타이들이지만, 제 마음을 더 끄는것은 씨름 이후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놓아달라는 주님을 붙들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 냅니다.

공동체 소식

센크라멘테 성당 봉사자를 위한 저녁 식사

매년 전통적으로 행하는 전 심부님 생신 축하 겸, 센크라멘테 성당 봉사자를 위한 저녁 식사가 8 월 14 일 , 오후: 6 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미사시간 변경 ( 오전 9:00 시)

한인 공동체 미사시간을 오는 9 월부터 오전 8:00 시에서 오전 9:00 로 변경 됩니다.. 새로운 미사시간에 더 많은 신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성당 골프대회, 9 월 25 일, 12 시 예정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9 월 25 일 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안내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서로 배움을 고무시켜주기위해, 요번 가을부터, 성경공부 그룹을 모집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마음과 와 닿는 부분을 외우거나, 써 가지고 오셔서, 그룹으로 나눔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삶에대해 가지고있는 여러가지 의문을, 저는 죽을때까지 해결할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의문이나 회의, 절망과 같은 감정들을 전혀 없는것으로 무시한 채 살아가지도 않을것 입니다. 다만 저는 궁급해하고 회의하는 중에도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릴 작정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주님은 저의 회의와 절망마저도 진지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영성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영성체로 주님의 몸(성체)을 받아 모시고자하는 신자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중대한 잘못(대죄)을 지었다면, 먼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 곧 소죄가 있는 경우에는 꼭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미사안에서 참회와 자비송을 바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며, 하느님의 뜻에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영성체를하면 소죄를 용서 받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미사전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